

## 제43차 정기(결산) 이사회 결과

### □ 이사회 개요

구 분 제 차 임시이사회

일 시 수

장 소 국립극단 온라인 회의실 비대면 이사회

출석인원 총 재적이사 명 중 명 참석 감사 명 참석

참 석 자 이사장 김상현 이사 김광보 이상우 정재승 이재경  
심재찬 김명화 김철호 윤성천 위임 감사 김혁수

간 사 경영관리팀장 정광호 팀장

### □ 보고사항

보고사항 제 차 정기이사회 의결 처리결과

보고사항 년 주요사업 실적보고

보고사항 명동예술극장 화재복구공사 보고

### □ 심의안건

제 호 의안 정관 개정 안

제 호 의안 인사규정 개정 안

제 호 의안 복무관리규정 개정 안

제 호 의안 임직원 보수규정 개정 안

제 호 의안 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안

### □ 의결결과

제 호 의안 년도 결산 안 원안가결

제 호 의안 인사규정 개정 안 수정가결 제 조 부결

제 호 의안 복무관리규정 개정 안 원안가결

제 호 의안 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안 원안가결

### □ 참고사항

제 차 임시이사회 주요 회의록

# 주요회의록

년 월 일 수

의 장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사장

## 성원보고

이 사 장 안녕하세요 국립극단 제 4차 임시이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사께서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분 중 분 참석하셨고 감사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문체부 윤성천 이사님께서서는 김광보 이사님께 위임장 제출하셨고 오종석 사무관님은 참관하셨습니다

이 사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는 보고사항 건 심의안건 건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보고 후 안건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이 사 장 첫 번째 보고사항은 지난 제 4차 정기이사회 의결처리 결과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회의자료 쪽 제 4차 정기이사회 의결처리 결과 보고함

이 사 장 지난 번 인사규정 개정 안 중에 사무국장 연임조항에 이슈가 있어서 오늘 안건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지난 번 제 기억에는 연임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재계약으로 명시되어있고요 지난번 이

사회 의결처리결과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의견 없음)

이 사 장 질문 없으시면 첫 번째 보고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안건 보고해주시시오

간 사 회의자료 쪽 국립극단 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함

이 사 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의견 없음)

이 사 장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 수치보다 상반기가 더 나아져서 코로나 상황에서 개선되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고 정상적인 해보다는 못하겠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무사히 좋은 실적을 내주신 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견을 드리자면 다른 이사회에 참석하면 의사록이 짧게나마 있는 것을 보았는데 국립극단은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것이 왜 없나 아니면 있는 건가 궁금했고요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셨었잖아요 두 번 째는 개월 또는 개월마다 이사회를 하는데 다들 바쁘다보니까 극단 소식이나 사정을 모르는 채로 하게 돼서요 오늘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공연의 의미나 보도자료도 보이고 또 깜짝 놀랄 만한 내용도 있어서 이사회 차원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고요 매일 뉴스레터를 보내는 것은 과한 것 같고 이사회 때 그간 미디어 소식 관련한 링크를 개월에서 개월이면 개에서 많게는 개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극단이 뉴스를 만드는 곳도 아니니까 개선 아이디어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간 사 네 먼저 문의주신 이사회 회의록은 자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고 결재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 장 기왕 만드신 내용 이사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지 생각해보  
시고요 뉴스 부분도 과할필요 없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명 화 저도 의사록 공유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회의 내  
용을 저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소통했  
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어서요

간 사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 장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호 보고안전은 접수하도록 하겠습  
니다 호 보고안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회의자료 쪽 명동예술극장 화재복구공사 보고함

이 사 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의견 없음)

이 사 장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가보질 못했네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세 번째  
보고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심의안전

간 사 회의자료 쪽 제 호 심의안전 재 국립극단 정관 개정 안 보고

(의견 없음)

이 사 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 호 국립극단 정관 개정 안 원안대로 가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호 심의안건 국립극단 인사규정 개정 안 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회의자료 쪽 제 호 심의안건 재 국립극단 인사규정 개정 안 보고함

이 사 장 지난 번 이사회 기억을 되살려보면 지난 번 조항의 연임이라는 단어의 해석이나 뜻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감독 관청에서는 특별채용 방식이 아니라 공개경쟁채용으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재 안건은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님들께서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명 화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특별전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들었었던 것 같고요 재계약 조항 관련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지난 번 회의 때는 사무국장의 재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채용을 하는데 기존의 사무국장을 뽑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왜 특별전형 제도가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간 사 지금까지 사무국장은 특별전형이었습니다 이번에 권익위에서 특별채용 관련 내용을 공개채용으로 바꾸라는 권고에 의해서 수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명 화 권익위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고 수용되어야하는 부분인가요

간 사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단체들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 명 화 알겠습니다 저는 장충동 국립극장 시절부터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국립극단의 고질적인 문제는 현장과의 괴리였었잖아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예술감독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문체부 행정 현장과 소통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술감독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특별채용 제도라고 알고있었거든요 만약 이 제도가 없어진다면 이후에 예술감독이 일할 때 어려

운 점은 없을까하는 우려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따라야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후임 예술감독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술감독은 연간 일하면서 굉장히 난처한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이나 유럽은 예술 감독이 들어갈 때 여러 명의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참모가 들어가서 일하고 나오는 시스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 장 김명화 이사님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추가하자면 특별전형은 예술감독이 재량권을 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공개경쟁 채용은 예술감독의 권한이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인가요 아니면 공개경쟁채용을 하더라도 지원자격이나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될 뿐이지 선정하는 위원은 예술감독님인 건가요 아니면 예술감독님은 빠지고 문체부가 하나요

간 사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고요 그 위원회에 감독님께서 참석을 하실 수는 있으나 감독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지원한 경우에는 회피 대상이 됩니다

이 사 장 김명화 이사님이 우려하신 대로 두 가지 방식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네요 감독님의 의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요 권익위의 권고나 지적이 법적으로 의무이냐 아니면 의무는 아니고 수용판단이나를 질문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 장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만 권고가 내려올 때에는 저희 기관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광 보 이 조항은 제가 알기로는 타 단체는 이미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립극단은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받고 국립극단도 이번에 바꾸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 장 김명화 이사님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우리 이사회 차원에서 거부할만

한 상황은 아닐 수 있겠네요

김 명 화 네 그렇네요 이사회 기록에 우려점을 작성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우려가 있었다는 것으로 남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 장 이사회 회의록에 이러한 우려 포인트를 남겨두셔서 어쨌든 계약기간이 년이니까요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정 재 승 지난 회의도 그렇고 이번 회의도 그렇고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관리되도록 하는 규정들은 계속 개정되고 바뀌어지고있는데요 훌륭한 창의적인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제도들도 같이 확충되면 좋은데 공정성만 따지다보면 점차 절차도 복잡해지고 훌륭한 인재를 놓칠 수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 현재 법에서 혹은 규정에서 수정할 건 없는지 살펴봐주세요

심 재 찬 사무국장이 직원에 들어갑니까 임원에 들어갑니까

간 사 직원입니다

심 재 찬 예술감독과 이사들이 임원에 들어가는거죠

간 사 네 맞습니다

심 재 찬 이게 뭐가 대치가 되냐면요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예술감독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년으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 면 대치되는 게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사 장 제가 봤을 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변호사니까 두 조항을 같이 해석하면은 채용방식은 공개로하는 것이 원칙이고 뽑힌 사람에 대해서 임면장을 주는 것은 예술감독이라는 뜻이지 예술감독이 마음대로 뽑으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용으로 되더라도 대통령한

테 임면장은 따로 받거든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재경 이사님  
어떠신가요

심 재 찬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의견이 있었는데요 재계약 같은 경우에만 공  
개채용 원칙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사무국장을 임면  
할 때에는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해야하는 게 아닌가 의미가 다  
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재  
계약은 한다고 해도요

이 재 경 저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심 재 찬 그렇습니까 괜찮은겁니까

이 사 장 이게 공개채용이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김 명 화 질문이 있는데요 공개채용 할 때 면접만 보는게 아니라 어떤 시험을  
보나요

간 사 현재 시험까지 보고있진 않고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두 가지 진행  
하고 있습니다 대신 년에 대한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증명  
까지 서류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 재 찬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  
칙으로 한다 이 부분 이었거든요 재계약이나 연임을 이야기하는 것  
이 아니라 연임을 하더라도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겠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인재활용도  
넓어지고요 그렇다고해서 현실적으로 예술감독이 전혀 다른 사람과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는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좋은데 이  
부분이 걸려요

이 사 장 그러면 조의 향이 직원의 신규 채용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심재  
찬 이사님의 말씀은 반대해석으로 재계약은 공개채용 방식이 아니어  
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항을 만든 의도는 신규



채용만 공개 채용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신규라는 단어를 빼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더 명확해지는 걸까요

간 사 설명을 드리자면 신규채용을 할 때에는 공개채용 방식을 택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심재찬 이사님께서서는 재계약을 할 때에도 공개채용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재계약이 아니라 다시 신규채용의 형태가 되는거죠

심 재 찬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난번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모를 안 했으면 원래 규정대로 임면하고 임기는 년으로 한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왜 했는지 물어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재계약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연임을 할 수 있지만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서 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술감독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술감독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예술감독이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사무국장을 지난번 공모했던 방식을 취해야 하는 걸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별안간 지난 번에 연임을 하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모의 형식을 취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정관이 어떠한 정신의 변화가 왔구나라고 판단을 했던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재계약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된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로 되어있으니까 앞으로도 이것이 분명해져야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간 사 이사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공모에 참여하였던 이유는 규정 내 검토 후 문체부에서도 의견을 주셨던 내용인데요 전에는 사무국장을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특별채용 조항을 권익위에서 권고해서 뺐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문체부에서 해석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별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립극단은 연임조항이 없는 상황이니 신규채용 조건으로 공개 채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 장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조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봤는데요 오현  
실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는 재계약 조항을 넣어서 공개 채용을 안 해  
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김명화 이사님의 말씀은 연임이든 특별채용 조항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술감독이 파트너를 잘  
고를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잘 했을 경우 단임제로 갈 것이냐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아니면 또 할 수 있고 년이나 년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한 번 하고 있는 사람이 연임이나 재계약을 할 때에 임의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공개채용을 거쳐야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요 개인적으로 공개채용을 안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불공정해  
보일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현재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자리를  
더 지키고 유지하려는 식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의미가 하나의 시대적 요구이고 권익위의 요구라면 이 조  
항을 신규 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재계약 이라는 말 자체는 보통 재  
계약이든 신규계약이든 새로운 계약이거든요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기로는 공개  
채용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틀  
렸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찬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제가 이해  
하는 바로는 다 좋은데 지난번에 공개채용을 안해도 되는데 왜 했었  
냐고 물으신건가요

심 재 찬 제가 드린 말씀은요 공개채용을 그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  
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안 맞는 게 사무국장이  
직원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  
다 로 되어 있으면 지금 사무국장은 공모를 통해서 왔으면 지금 있는  
상태의 뜻은 뭐냐면요 예술감독이 자의적으로 연임도 할 수 있고 연  
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서 현행은 재계약을 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재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상한 게 여기서는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위에서는 예술  
감독이 얼마든지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하고 기관장이 특수하다는 의

미에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이걸 자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관이라는 게 바꾸려면 그에 맞는 취지나 정신이 있어야하는 거거든요 사람 하나를 채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다음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 장 심재찬 이사님 말씀은 조와 조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심 재 찬 네 그렇죠

이 사 장 그러면 앞뒤가 맞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 광 보 년으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채용방법을 어떻게 한다 라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한다 와 더불어서 재계약은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심 재 찬 지금처럼 하려면 그렇게 해야하는 거죠

이 사 장 재계약 시 채용 방법이 무엇인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저는 당연히 공개채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 시에는 공개채용이 필요없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문제네요

김 광 보 재계약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 재 찬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오현실 사무국장이 이번 임기로 끝나면 그 다음 사무국장은 신규채용 형식을 따라야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연임은 예술감독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예술감독의 권한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느냐거든요

이 사 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계약 시에는 공개채용을 안 해도 된다고 할지 의견을 주시죠

김 광 보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을 해도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조항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재임용도 원칙을 따지면 공개채용으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 장 저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현실 국장님이 다른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쵸

간 사 네

이 사 장 오국장님은 왜 그렇게 말씀 하셨던 거죠 재계약 때에는 공개채용이 필요 없다 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간 사 오히려 저희는 문체부에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다른 예술단체는 연임 조항이 있는데 국립극단은 왜 연임조항이 없느냐 라고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 장 아 네 그때의 연임은 당연히 연장 되는거다 라고요

간 사 네 맞습니다

이 상 우 지금 개정하는 규정에 의하면 충분히 사무국장의 임기가 3년인데 재계약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3년 뒤에 공개채용을 통하지 않고 재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예술감독님의 의견도 그렇고 이사님들의 의견은 3년 뒤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공개채용 형식을 밟아야 한다 라는 거잖아요 논의가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개정 된 조문을 명확하게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사무국장의 임기 끝나고 재계약을 한다면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감독님의 임기도 3년이잖아요 예술감독님도 3년 단위로 바뀌잖아요 사무국장이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연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하던 3년을 하던 공개채용을 통해서 연임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 사 지금 주신 의견으로라면 연임이 아니라 새롭게 채용해야하는 과정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관하신 오종석 사무관님도 발언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오종석 사무관님께서 정리해주시면 어떨까요

오 종 석 일단은 발레단이나 합창단 오페라단도 비슷한 문구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관마다 해석하는 방식으로 공개채용으로 진행하는지 아니면 예술감독님의 권한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는 기관마다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재계약을 한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국립단체 전반적으로 재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재찬 이사님이랑 이사장님이 의견 주신 것을 보니까 규정이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국립단체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접근하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심 재 찬 사무관님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무국장이 임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것 같은데 국립단체들에 대해 문체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지침처럼 채용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시대정신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본인의 환경이나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대신에 지금처럼 명확하게 정관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정신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종 석 기관 사정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요 사무국장 체제는

심 재 찬 어차피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문제이니까 그 안에서 성격에 맞게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오 종 석 저는 예술단체의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전자로 말씀드리면 예술단체들이 사무국장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

적 차원에서는 통일성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이 부분이 예술감독님이 손발이 맞는 행정감독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채용보다는 예술감독님의 의지로 재계약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장님과 여러분들 의견을 듣다보니까 이 부분도 공개채용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도 있고 아시다시피 예술단체마다 동일한 조항을 갖고 있음에도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 장 듣다보니까 이사님들이 각기 말씀해주신 내용과 김명화 이사님이 말씀하신 뜻도 더 이해가 되면서 제 의견은 다시 철회하고요 다만 예술단체의 자율성이랄까요 문화부에서 함께 고려해서 판단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논의는 일단 이 정도로 하시죠 시간이 촉박해서 심재찬 이사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취지는 다 전달이 된 것 같거든요

심 재 찬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깐요 문체부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 번 이성열 예술감독이 국립극단에 예술감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바뀌었어요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단장 겸 예술감독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게 전임 예술감독이 이야기해서 바뀐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단장 겸 예술감독 제도라는 것은 예술감독의 권한이 강화 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사실 의견충돌이 많아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건데 운영의 자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장 겸 예술감독은 문체부의 입장이지 예술계 쪽의 입장은 아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의 자율성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차피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고를 쓰기 때문에 국고에 대해서도 엄청난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 장 의견을 잘 참작해주시죠 그러면 호 안전 처리는 일단 이대로 승인을 할까요 이 문구는 다른데도 동일하다고 들은 것 같고 다만 해석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해한다면 이번에 승인하고 해석에 대한 지침과 실제 추진하는 것은 문체부와 협의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호 안전은 승인 보류냐 여쭙보고 싶습니다 제 제안은 이번 호 안전은 승인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사회를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 재 찬 사무국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거 다음번에 해도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아까 예술감독 의견도 있었고 이사님들 몇 분도 보완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보완을 해서 꼭 보시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요

이 사 장 네 알겠는데요 사무국장님이 재계약이 되신 건가요

간 사 저는 공모에 지원을 해서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 장 이 조항과 상관없이 이미 되셨군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절차가 지연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상 우 그러면 개정안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조에서 신규 채용 을 채용 으로 바꾸면 조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거든요 조의 신규 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사 장 아닙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그렇다는 건데 신규 와 재계약 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쓰여진 것 같아서 지금은 일방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 명 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무국장을 공모로 뽑지 않다가 공모로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모가 나갔다는 것을 사전에 듣지 못하고 이사회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공모에

해서 재계약하신 것도 지금 알았습니다 이사회에 중요한 정보들 무언가가 바뀌거나 변경 될 때 미리 보고를 해서 저희가 정보를 알고 회의에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 장 감독님과 국장님 의견을 반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는 승인을 보류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사무관님과 협의해서 다른 단체들과 명확한 해석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음 이사회 때 다시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 사 그러면 조는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 조 조의 는 승인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이 사 장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조에 대한 것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승인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 없음)

심 재 찬 조는 승인이 왜 필요하나면 직원은 신규 채용을 해야 할 일이 계속 있을 테니까 조는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 장 네 조는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논의를 하셨는데 조는 보류하고 조와 조의 는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심의안건 보고해주십시오

간 사 회의자료 쪽 국립극단 년 복무관리 규정 개정 안 보고함

이 사 장 네 혹시 반대하는 이사님 계십니까

심 재 찬 없습니다



이 사 장 호 안전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심의안전 보고해주십시오

간 사 회의자료 쪽 국립극단 년 임직원 보수규정 개정 안 보고함

이 사 장 이것도 권익위가 권고한 내용 같은데요

간 사 네 맞습니다

심 재 찬 명절 수당 신설도 권익위 권고 입니까

간 사 아닙니다

이 사 장 이것은 문화부와 협의가 되어서 다른 곳과 형평성이런 관계 때문인가  
요 문화부에서 이의 없으십니까 오사무관님

오 종 석 네 저희와 협의된 사항이고요

이 사 장 혹시 직원들 명절휴가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사님들 계신가요  
특pecially 이의 없으시면 호 안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심의안전 보고해주십시오

간 사 회의자료 쪽 국립극단 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안 보고함

이 사 장 질문 있으신가요

심 재 찬 특별히 없습니다 오종석 사무관님 성과급 올려주세요 직원이 많은데  
천 백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 사 장 천 백이 증액된 겁니다

심 재 찬 아 죄송합니다 증액 된 거네요

김 명 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잖아

요 명절 휴가비나 상여금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여기서 증액 부분이 있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 장 호 안전에 추가 질문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사회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사회는 시 즈음에 해도 촉박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깨달음이 많습니다 예술단체의 자율성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주셔서 사무국과 문체부 많이 이야기 하셔서 좋은 해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차 정기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함

이사장	김상헌	인	이 사	김광보	인
이 사	이상우	인	이 사	정재승	인
이 사	이재경	인	이 사	심재찬	인
이 사	김명화	인	이 사	윤성천	인
이 사	김철호	인			